

예배 및 모임안내

2022-15 2022년 4월 10일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청년 큐티 나눔	금요일 오후 9시	Zoom
한민 말씀방	매일	카카오톡

주일 예배 봉사위원

	04. 17	04. 24	05. 01
대 표 기 도	김효종 집사	장래황 성도	정용현 집사
성 경 봉 독	김효종 집사	장래황 성도	정용현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안내 : YouTube에서 „브레멘 한민교회“ 검색하세요.

교회소식

4월 축복인사 -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성도 간에)
 좀 천천히 가도 괜찮아 걱정하지마!(자신에게)

1. 종려주일 -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묵상하는 주일입니다.
2. 고난주간 성경읽기 - “이사야”서를 정독합니다(2023년 말씀 카드)
3. 역 라마단 운동 - 라마단 기간(4월2일~5월1일) 동안 이슬람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4. 부활주일 예배 - 부활절 감사헌금을 드립니다(흰색, 붉은색 옷을 입고 예배드립니다)
5. 코로나 대응 - Luca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감사헌금	
집 일 조	
합계(Euro)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교회(히10:25)”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예배반주 이 세 현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종려주일

- 찬 양 Gemeindelied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149장 **다같이**
 기 도 Gebet 김영희 권사
 성경봉독 Predigttext 요 19 : 1 -4(신p180).....김영희 권사
 (Johannes 19:1-4)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이상호 목사
 설 교 Predigt 고난 당하신 주님! **이상호 목사**
 * 파송찬양 Abschlusslied **선한 능력으로** **다같이**
 *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김효종 집사

† 기도제목

1.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거듭난 성도로 살게 하소서
2. 한민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학업과 생업에 기쁨 부어 주소서
3. 우크라이나와 세계 평화와 경제 안정을 위해
4. 역라마단 기도를 통해 이슬람 형제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5. 김선택, 장보경(형가리) 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고난의 유익

Harold Kushner라는 유대교 랍비에게 뜻하지 않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아들 아론이 이유 없이 '조로증'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들이 늙어 죽어가는 불행한 고난 가운데서 고뇌하면서 책 한 권을 썼습니다.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발견한 것은 '인간의 불행 속에서 무력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억울함과 슬픔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유대교 랍비였으나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원망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가 과연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가? 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보고 알 수 있는 유일한 거울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꽤 쓸만하고 괜찮은 사람인줄 알고 지냈는데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당황하고 화내고 불평하는 스스로를 보며 자신이 형편없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면 고난만큼 유용한 것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고난을 통해 성숙해 가는 과정입니다. 고통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하나님의 새로운 면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체험을 통한 신앙고백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새로운 문이자 길이 됩니다.

길 밖으로 난 길 / 신우인 목사
 (포이에마 예수교회 담임)

* 우리의 기도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란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 John Greenleaf Whittier(미국 시인) -